

❖ 화제

여러분 비문학의 원래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독서’**입니다.

요즘 많은 강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글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읽는지에 대해 많은 방법이 있지요. 저도 이런 글을 읽는 태도나 관점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딱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비문학, 독서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글답게’** 읽어야 합니다.

물론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서랑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독서’ 즉, 글 읽기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향상을 이뤄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철저하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한 연습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의 정답 근거, 3문단 4번째 줄 밑줄 째!

지문 구조분석, 문단 요약, 내용 정리 딱!

이렇게만 해서는 성적이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독서 태도와 독해 도구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설이든 만화든 어떤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그어 가면서 읽으시나요? 또는 글을 읽을 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표시들을 예쁘게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책 옆에 내용 구조도를 그리면서 읽거나, 문단마다 요약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남기는 게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이런 표시'만' 하면서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겁니다)

대신 필자가, 혹은 이 글이 나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는 '무조건' 파악하면서 읽으실 겁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읽을 때는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모든 글은 하나의 화제(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더라도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 화제를 잡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꼭 '글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하면서 글을 읽으세요.

❖ 키워드

화제는 곧 글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이루는 내용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단어 즉, 키워드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잡고 연결하세요. 그게 화제를 파악하는 연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핵심 키워드 단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화제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단어만 체크하면 되냐?

아닙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생소한 경제 뉴스를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하겠죠. 그럼 용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읽어 보시죠.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줄을 추가해 볼게요.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3억2천440만 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 사 9천211만 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3천228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0.4%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38% 늘어났다.

- 한국경제 TV 기사 中 -

어때요, 조금 낫지 않으신가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무보유’였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아래의 경우에는 이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그나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억 2천여 개의 주가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똑같이 키워드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입니다. 수능 지문에서도 생소한 개념에 대한 글을 자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이 양자 역학적 터널링 기술이나, 가능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문을 이해하고 글의 이해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문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들은 항상 ‘정의’와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는 그 Definition입니다. 속성은 정의 이외에 어떤 키워드들의 특징이라고 할만한 모든 정보들을 통칭합니다. 이때 정의와 속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하나의 특징은 있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과거제의 정의가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것과 과거제의 특징이 ‘합리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제는 ‘능력주의적(정의)이니까 합리적이다(속성)’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평가원이 정의를 주는 방식인데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제시합니다. 일반적 정의와 숨겨진 정의가 대표적이는데, ‘숨겨진 정의’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자칫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1.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말 그대로 ‘A는 ~이다’와 같은 꼴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A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예시로 봅시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회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이론의 정의는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이라고 하네요.

❖ 과학&기술 지문 독해 태도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읽는 방법은 사실 과학&기술 지문이 가장 단순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대부분 특정한 과학 현상이나 기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룬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원리만 나열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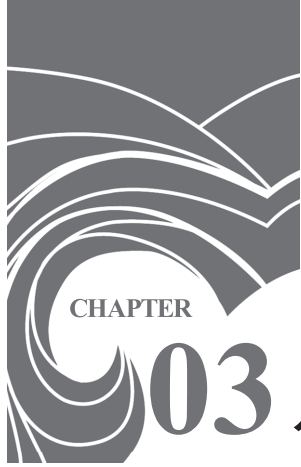
항상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과학적 현상이나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특히 기술 지문의 경우, 특정 기술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당 원리를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또 약간은 꼼수스러운 팁이지만, 평가원은 특정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때 구성요소를 제시한 순서에 맞게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제시될 때, 종종 그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기술의 정의나 목적과 직결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도 예시로 볼게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 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밑줄 친 부분에서 제시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CD 드라이브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작동 원리를 과정에 따라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읽다 보면, 광 픽업 장치의 광 검출기가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CD 드라이브가 빛이 반사·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정보를 판독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광 검출기이니깐요!



CHAPTER

03

사회(법&경제) 기출문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편 283p)

-2017.11 [37~42]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가]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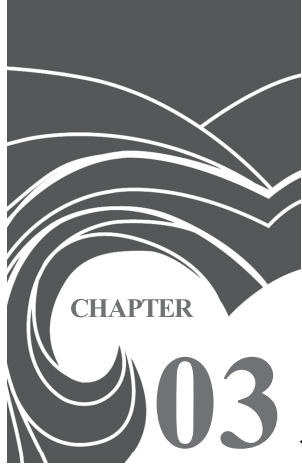
— <보 기> —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제재별 독해 태도 - 사회(법&경제)

[1~6]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의 정의와 속성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보험 정의 체크하고, 속성까지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지문은 일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속성을 보니 조건부 상품이라는 특징이 또 있네요. 그럼 보험에 대해 얘기하기는 할 건데 조건에 따라 실현된다는 특징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하고 화제 잡고 다음 문단 예상하면서 넘어 가면 되네요.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대요. 우리가 아는 보험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보험료 매달 내고 사고 나면 보험금 받고!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미시적으로 따지면서 이해해볼게요. 보험에는 '위험'이라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걸 보니 위험과 보험

료 납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아마 사고와 관련된 위험이라고도 이해해볼 수 있겠네요.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의 정의와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가볍게 납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보험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였으니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의 정의와 관련된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사고 발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건 정의에서부터 계속 체크했던 내용이지요? 그걸 재진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래요. 문단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화제는 보험으로 잡고 넘어가되, 뒤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때 그 조건(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설명하겠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2문단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에 따라 나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맥락에서 공정한 보험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만 딱 제대로 잡고 읽는다면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결국 사고 발생 확률을 따지는 것도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 때문이겠죠? 앞에서 예상한 대로 2문단이 전개되고 있네요! 지문의 흐름을 잡고 내용을 납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정보였습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1문단에서 보험의 정의를 체크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바로 보험의 정의 떠올립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네요. 앞에서 말했던 보험의 정의를 재진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험료랑 보험금은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사고 발생 확률은 사고 발생 위험이겠죠? 앞에서 보험의 정의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사고 발생 확률과 위험이 같은 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서술의 초점이 보험료·보험금 책정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캐치해주셔야 합니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보험금이란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확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확률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을 고려하는 거죠? 핵심만 기억하고 딱 읽어주세요!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공정하다고 하네요. 결국은 또 위험을 제대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맥락이네요. 1문단에서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죠? 또 2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앞에서 위험을 고려해서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여기서 그걸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험이라는 키워드는 가볍게 체크할 수 있겠죠? 정의 자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말 그대로 위험을 제대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이 공정한 보험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속성으로 볼 수 있겠네요.(정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정한 보험 : 보험료 = 보험금 기댓값

공정한 보험 :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

왜 공정한 보험이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공정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 기댓값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고 발생 확률과 관련된 개념이네요. 위험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보험금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X 보험금

그런데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 보험금 기댓값이 보험료랑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이번에는 보험료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네요. 말 그대로 보험료의 비율이라서 보험료/율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크거나 작으면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네요. 보험료 책정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위험이 고려되고 있네요.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이어야 한대네요. 둘이 같아야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기 때문이겠죠? 앞에서 두 개가 서로 크거나 작으면 보험금 총액이랑 보험료 총액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아무튼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위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럼 중요한 사항을 알린다는 건 보험료를 제대로 책정하는 등 앞 문단에서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데 이것마저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문장을 잘 읽으면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네요. 고지 의무가 앞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도 문장을 읽으면서 다 이해했죠?

#5문단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고지 의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이번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 길이도 엄청 길고 정보량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헛갈릴 수 있어요. 이럴 땐 일반적인 경우를 하나 딱 잡아놓고 읽는 게 좋습니다. '고객 실수 - 보험사 해지권 · 반환 청구'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 제한, 반환 청구 제한이라는 두 가지 예외가 등장하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잡고 나머지 예외와 구분하면서 잘 읽으

면 됩니다. 예외에 주목하라는 태도 다들 기억하시죠? 비교지점의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일반적인 법 위반 VS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비교지점이 잡히니까 여기에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게 고지 의무였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으니 이것도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보네요.

그런데 왜 중요한 사항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할까요? 역시나 고지 의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이나 그 맥락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쉽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이걸 보험사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문제는 보험료 책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고요. 즉 보험 체결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보험을 체결하고 나서 알리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로 인해 보험 가입 동기를 상실하는 사람도 생길 테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문단에서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 위반'에 맞춰지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문장 읽어야겠어요. 또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또 보험료·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문제 상황을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 해지권이 등장한 것이네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결국 보험 계약에서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테고 그럼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입자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땐 아예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네요. 납득할 수 있겠죠?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권이 생기니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다만 보험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 해지권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미 지급한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봅니다. 당연한 말이네요. 이해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 해지권이 등장했고 이 계약 해지권의 정의와 속성을 정리하면 '계약 해지권 - 계약 해지 + 반환 청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에서의 의무 위반과 고지 의무 위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진술 문장이네요. 하이퍼리얼리즘 지문에서,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팝아트와 비교했죠? 그 경우랑 비슷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설명해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재진술 문장이라는 점과 함께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무 이행 강제 및 손해 배상 청구'입니다. 일반적인 의무 위반에서는 둘 다 가능한데, 고지 의무 위반에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네요. 오로지 해지권 행사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지권 행사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결국은 계약 해지권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생각해봐야겠죠? 일종의 예외라는 생각을 갖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그때는 그냥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깰 수 있었던 것이

였죠? 그런데 이 경우는 보험사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다르네요. 일단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같은데, 보험사가 그걸 알았거나, 보험사 책임으로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 해지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예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해지권이 없으니 당연히 보험금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이걸 납득하려면 3문단에서 봤던 문제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와 관련된 위험, 사고 발생 확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고도 눈감았다? 혹은 보험사가 실수했다? 이러면 다른 보험 가입자들(위험 공동체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손해를 입는 겁니다. 보험사 때문이에요! 그럼 보험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계약 해지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계약을 엮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문제를 풀 땐 앞에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재진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건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잘못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보험사의 잘못 또한 있는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하면서 읽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럼 둘 다 잘못이 있는데 굳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둘 중 보험사가 더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게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잘못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잘못된 상황에서 이 계약 해지권을 인정 안 한다? 그럼 둘 중 보험사가 더 잘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한 문장씩 뜯어보는 거예요.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속성이네요. 행사 기간이라는 계약 해지권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보니, 보험 가입자를 배려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장이랑 연결해서 이해해보자면, 뭔가 보험 가입자를 좀 더 배려해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에서도 둘 다 잘못했을 때 보험사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보험 가입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기간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를 좀 더 봐준다는(?)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앞에서는 계약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보험 가입자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점을 파악해주시면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서술 초점 자체는 유지되지만요!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고와 인과가 없으면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네요. 그럼 계약 해지권

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꾸 내용이 왔다 갔다해서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단 서술의 초점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맞춰졌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그 난잡함이 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오잉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헛갈립니다. '계약 해지권 행사 → 보험금 반환 청구 가능'이라는 흐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예외라고 봐야 해요. 원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는데 그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돈을 주긴 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도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긴 한 것이니까 보험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외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속편한 거예요. 총 3가지 케이스가 '반환 청구권', '보험금 지급'이라는 점에 대해서 비교지점이 잡혔습니다.

정리할게요.

고지 의무 위반	일반적인 경우	보험사도 잘못된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권	○	X	○
보험금 반환	○	X	X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같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했었죠?

#6문단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간단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고지 의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특성은 그 보험 가입자의 위험(사고 발생 확률)일 겁니다. 고지 의무는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료를 잘못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흐름 기억하시죠? 그걸 정리해주는 문장이예요.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문단에서 나온 보험의 정의와 속성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역시나 그냥 손실 대비라는 보험의 목적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문 총평

보험이라는 큰 화제와 보험료, 보험금 책정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에 대한 정보들도 정리해야 하는 지문입니다. 정보량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요. 다만 지문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재진술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했던 지문입니다. 특히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재진술을 엄청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씩 뜯으면 막상 해야 할 생각은 고지 의무 부분에서 더 많은데 체감상 보험료·보험금 내용(2문단)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도 2문단 또한 결국 위험을 고려한다는 보험의 특징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지 의무 부분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점은 5문단을 읽을 때 예외를 잘 활용하면서 비교지점을 정리하는 태도였습니다.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역시나 지문의 흐름 짚고 넘어갈게요. 보험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그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려주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고지 의무였죠, 그러면서 고지 의무와 관련된 정보들 알려주고 뭐 고지 의무가 보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지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보험사가 준수할 법률 규정을 알려주진 않았죠? 법률 규정이라고 할만한 건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였으니까요.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